

# 익산시 학곤선 조기 개통

### 주민 협조로 4개월 앞당겨 개통... 서부권 도로망 '츄츄' 송학동 3개 아파트 주변 교통난·주거환경 개선에 효과

익산시가 서부권 주민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학곤선을 조기 개통했다. 서부권 주요 도로망과 연결되는 학곤선의 조기 개통은 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 군산과 김제로 뻗어나가는 서부권 도로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 교통 중심도시 익산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5일 지안리2아파트에서 송학동 티스타이션 앞까지 연장 820m, 폭

25m인 송학동 학곤선(대로3류7호)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기 개통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정현을 시장과 박철원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공사 준공을 축하하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약 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18년 10월부터 공사에 착공했다. 사업 첫 발을 내딛은 시점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다가 최근 2년 간 잔여사업비 2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초 완공일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서 개통했다.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학곤마을과 망기마을, 지안리2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송학동 주민간담회 진행 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주와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 불편 해소(B=8m-25m 확장)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와 의회는 교통량 증가로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해 이같이 조기 개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번 개통으로 인근 지역 교통난 해소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를 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공사를 빠르고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곤선은 일대에 1천100여세대의 민간 아파트개발 및 주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어 나후된 서부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지역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인 군산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대학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학생 취업 지도에 나섰다.

##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 학생 취업 지도

### 군산상고 방문 맞춤형 교육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지역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인 군산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대학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학생 취업 지도에 나섰다.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의 전문 진로 취업 컨설턴트 3명이 군산상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를 비롯한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취업지원 서비스는 2017년 군산대학교와 군산상업고등학교가 체결한 진로 및 진학 교육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 체결 이후 군산대학교는 매

년 군산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예정자 및 예비 취업자 등 학생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왔다.

정승우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수고를 충족할 수 있는 진로 및 취업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대학교는 2017년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내 진로 취업지원 서비스는 물론 정부 청년고용정책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간여행축제 취소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오는 10월 9일부터 3일간 군산시간여행마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및 각 지방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유입 차단 및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축제 취소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군산시간여행축제를 회고하는 온라인 비대면 공모전과 집콕 생활에 비맞은 이벤트 등을 준비해 시간여행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홍보를 적극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축제공간인 시간여행마을 일원을 조형물 설치 및 홍보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하여, 언제 방문하여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 소하천 정비 추진

군산시가 상습적인 침수피해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상습적인 침수피해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수질 개선 및 친환경적인 하천환경 제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산시 전역을 흐르는 소하천은 총 35개소가 있으며, 지난 2018년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년 재원을 확보,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조촌동 동산천변에서 구암동 배수펌프장까지의 구간천과 서수면 마동리에 위치한 운방천, 수시천, 옥산면 소재지에서 원형공판장까지의 옥산천을 정비할 계획이다.

총길이 1.25km의 구간소하천은 시가지구간 침수예방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 '꼬꼬마 양배추' 특교세 11억원 확보

### '저온유통체계 구축' 재원 사용

군산시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그 사용목적에 정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현안·재난안전 분야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한 '꼬꼬마 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

업'은 지역특화산물인 꼬꼬마 양배추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신선식품으로 가공·개발함으로써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군산시의 꼬꼬마 양배추는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

정된 바 있다.

강임준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도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로 얻어낸 성과이며, 앞으로 전라북도, 정치권,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시, 무인 '스마트도서관' 개관

### KTX 익산역사 3층 위치... 비대면 도서대출반납 서비스

익산시 도서관이 스마트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시는 5일 KTX 익산역사 3층에서 스마트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비대면 방식의 무인 도서대출반납시스템으로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이번에 개관한 익산역사 365 스마트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총 사업비 1억3천만 원을 투입해 설치됐다. 보안성 검토와 장비 구입을 거쳐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500여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책이음 회원이라면 누구나 1인당 3권까지 14일간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분

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즉시 이용할 수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익산역 철도 이용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익산역 스마트도서관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기존 도서대출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책소독기를 함께 설치해 시민들이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스마트도서관 개관으로 익산역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방식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뿐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책을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어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탑마루조공, 북부청사 이전... 민관 협력 강화

익산탑마루조공합동사업법이 북부청사로 이전에 농업인, 행정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5일 정현을 시장과 탑마루조공법인 김종길 대표 등 참여농협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청사 입주 개소식을 열고 통합마케팅 조직의 운영 방

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해 있던 탑마루조공법인은 행정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민단체에 방문하는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북부청사 내

농산유통과 맞은편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북부청에 집중되어 있는 과수·원에 농가와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익산시와 탑마루조공은 지난 6월 2019년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평가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각각 2년 연속 최우수(A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